

올해 광양시민 최고 관심은 LF스퀘어

市, 정책·관심사항 설문조사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2위

운전면허시험장·양육비 순

대형쇼핑몰인 LF스퀘어 테라스를 광양점 오픈 소식이 올해 광양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뉴스로 꼽혔다. 중소기업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골프장과 호텔 건립 등 5개 분야 22개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했던 정책과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466명)가 LF스퀘어 테라스를 광양점을 가장 관심을 끈 뉴스로 꼽았다.

특히 LF스퀘어측은 지난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때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규모 투자 유치분야(4개) ▲지역경제 활성화분야(5개) ▲지역상인 상생협력분야(4개) ▲지역 미래가치 창출(6개) ▲지역사회 공헌 방안(3



LF스퀘어 테라스를 광양점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개) 등 5개 분야에서 22개 항목을 담아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과 호텔 건립, 현저법 인화, 예구 근린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은 대부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어린이보육재단도 관심을 끈 뉴스 2위에 올랐다. 광양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여성친화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최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됐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소형, 대형, 트레일러, 레커차(견인차) 등 모든 차량 기능시험이 가능한 광양 운전면허시험장도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3위에 오르며 관심을 받았다.

첫째아 출산시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광양 지역민들 사이에 화제로 떠올랐다. 광양시는 애초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첫째와 둘째에 출산시 200만원을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첫째와 둘째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했었다.

'여수·순천·광양을 오가는 광역시내버스 개통', '광양시 예산규모 1조원' 소식이 5위에 선정됐으며, '광양 와인동굴 개장',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무지개다리 개통',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등도 관심 뉴스에 올랐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양한 대형 편의시설이 들어서 호응을 얻었다"면서 "내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여성들은 안전한 도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어른들의 건강을 챙기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청년 스테디룸 무료 대여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은 최근 도서관 내 청년 스테디룸을 설치,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빌려준다.

서비스는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 중 2인 이상 8인 이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한 차례 3시간까지 무료로 빌려준다.

중앙도서관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그룹 스테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중앙도서관(061-797-3861)으로 하면 된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김 양식 발상지 태인동 용지마을에서 초등생들 지역문화 체험

물김 자르고 발장에 말리고

재배과정 배우며 뜻깊은 하루

광양은 세계 최초 김 양식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조선 인조 때 김여익(1606~1660) 선생이 삼진강 하구인 광양시 태인동에서 대나무 가지 등을 모래밭에 꽂아 처음으로 김을 양식했다고 전해진다.

홍조류인 김은 바닷속 바위에 이끼처럼 붙어 자라는 특성 탓에 원래 이름이 '해의'(海衣), 해태(海苔)였으나 김 양식을 최초로 정안한 김여익의 성씨를 본 따 '김'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태인동 용지마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김의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놀이인 '용지 큰줄다리기'가 300여 년 동안 이어져오다.

최근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김 제조 체험 행사가 열린 것도 무관하지 않다.

용지큰줄다리기보존회는 지난 21일 용지마을회관 앞에서 김 제조 체험행사를 열었다.

김영웅 보존회장을 비롯, 보존회 관계



태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용지마을회관 앞에서 김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자, 태인초 학생·교직원, 주민 등 100여 명이 물김을 자르고 재래식 도구로 물김을 펼쳐 발장에 말려 마른 김을 직접 구워먹는 체험을 했다.

김영웅 회장은 김여익 선생의 김 재배 과정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지역 역사문

화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웅 회장은 "학생들이 체험 행사를 통해 380여 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김 양식이 광양에서 시작돼 오늘날까지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고속·시외·시내버스 간 환승 가능해졌다

삼진강환승휴게소 문열어

고속·시외·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광양 삼진강휴게소가 문을 열었다.

광양시는 28일 삼진강휴게소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진강환승휴게소 개통식을 개최했다. 환승휴게소는 29일부터 운영된다.

9억원을 들여 조성된 광양삼진강환승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발권부터 탑승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내버스

로 연결되는 터미널화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고속버스에서 시내버스로도 탑승이 가능하다.

삼진강환승휴게소에서는 광주, 여수, 순천 등에서 부산, 창원, 울산 등으로 가는 고속버스 8개 노선을 포함해

시의원 10개, 시내버스 2개 등 총 20개 노선이 연결된다.

광양과 하동 일대를 오가는 시내버스로 삼진강휴게소까지 이동해 고속버스 티켓을 구입해 광주, 부산, 창원 등으로 갈 수 있다.

광양시는 시내, 시외, 고속버스로 연계 환승이 가능해 목적지까지 여러번 갈아타는 번거로움과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호남을 잇는 교통망 보완에 따라 지역 간 연계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삼진강환승휴게소가 광역 관광의 중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전거 랜드마크 조성,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확충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복지시설 물품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는 지난 27일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 지역경제 활기 불어넣기 앞장

광양사랑상품권 6억여원 구매하고 직원 간담회비 지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6억7300만원 어치를 구매, 임직원들에게 나눠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발행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는 광양시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다. 지역상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에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12억여원어치를 구매,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광양제철소는 또 직원들의 특별 간담회비로 3억 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

다. 직원들은 지역 식당에서 회식·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비를 사용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회공헌활동도 남다르다.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최근 월급의 1%를 모은 기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월급 1%씩을 모아 장애인복지시설 14곳에 27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구매, 전달했다.

광양제철소는 이외에도 여성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노인치매예방사업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명량대첩의 신화가 살아 숨쉬는 '지붕 없는 미술관'

Usuyeong Culture Village

우수영 문화마을

우수영 문화마을은...

- 조선시대 전라도 수군의 본영으로 약 500년 동안 서해와 남해 바다를 지켜온 성지이며,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판옥선·우수영 민초들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한 명량대첩 승전의 현장. 또한 '누적 관객수 역대 1위'를 기록한 영화 '명량'의 울돌묵 회오리 물살 촬영지.
- 2015년부터 전라 우수영 수군진 문화와 전통문화예술, 공공미술이 결합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마을로 자리매김. 3년에 걸쳐 회화, 조각, 영상미디어, 설치, 공예, 호형작품, 다양한 갤러리, 예술카페 등으로 꾸며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 '면립상회', 강강술래를 체험 커뮤니티 공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만화책에 담은 만화갤러리, 주민들의 사진과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소울 아카이브관 등 골목 구석구석 이야기거리로 가득한 문화공간.

검색하세요!

우수영 문화마을

우수영 문화마을 주민협의회 회장 정춘원
 민관문의 534-4115, 010-8605-1130